



새해 첫 일출...금당산의 해맞이 2019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남구 금당산서 1000여명이 무등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해 소망 기원...해맞이 명소 인파 북적

무등산·금당산·해남 땅끝 등
수천명씩 몰려 새해 첫날맞이

1일 새벽 6시10분께 광주시 남구 금당산 정상(해발 300m)은 이른 아침부터 새해 해맞이를 하려는 주민 1000여명으로 북적였다. 장갑과 목도리, 두터운 패딩 자켓으로 중무장한 주민들은 영하 5도를 밀도는 추위 속에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 7시40분께 무등산 너머로 붉은 빛이 떠오르자 주민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휴대전화로 일출을 찍는 사람들, 옆사람과 새

해 덕담을 나누는 사람들,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 등 다양하게 일출을 맞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구가 마련한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에 참여해 풍선 1000개를 동시에 하늘로 날려보냈다. 이동훈(34·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씨는 “친구들과 새해 일출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의 건강을 빌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 “올해도 한살, 두살 배기 딸 모두 밝은 모습으로 자라고 풍요로운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해년(己亥年)의 첫날인 1일 광주·전

남 해맞이 명소는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덕담을 나누고 소망편지를 적으며, 해맞이객들은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나뭇재 정상에서는 동구정이 주관한 ‘동구민과 함께하는 기해년 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은 해맞이와 함께 불우이웃 성금 모금·소망편지쓰기 등에 참여하며 따뜻한 새해를 맞았다. 해남군 땅끝마을에서도 오전 7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일출 시각 7시40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손을 모으

며 새해맞이 준비를 했다. 예보보다 조금 늦은 7시50분께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오르자 옆사람과 인사를 건네며 추위를 녹였다. 또 고흥 남열 해변, 완도 일출공원, 장흥 정남진 전망대 등에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일출을 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 3선에 잡힌 무등산 서석대에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산에 올랐다. 하지만 구름이 많아 해를 보지 못한 시민들은 덕담을 나누며 아쉬움을 달랬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교육장 공모...전남은 물리고 광주는 인물난 왜?

광주서부교육장 지원자 0명
광양 4명 화순 11명이나 몰려
재량 적고 ‘들러리’ 우려 등 작용

같은 교육장인데 전남은 희망자가 넘치고, 광주는 아예 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뭘까? 3월 1일자 임용예정인 광주서부교육장 공개모집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도입된 교육장 공모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7년 만에 부활한 전남지역 교육장 공모에는 다수의 응모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

육장 공모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자 오는 3월 1일자 정기 교원인사에서 교육장을 임명키로 했다. 지원자가 없어 교육장 공모가 무산된 것을 두고 광주 교육계에서는 교육장의 권한이나 권위보다는 책임·부담이 강조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시교육청이 자리잡은) 화정동에서 보면 광주 전체가 보인다’는 광주교육계 한 인사의 말처럼 시교육청 관할 범위 자체가 전남보다 현저히 작아 선출직 교육감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교육장 운신의 폭이 좁은 것도 한 이유로 거론된다. 과거 일부 공모과정에서 내정설 등이 나온 적이 있어, 복잡한 전형을 준비하고서도 이른바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져 지원 의지

를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7년만에 이뤄진 전남지역 교육장 공모에는 지원자가 몰렸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광양시와 화순군 등 사·군 한곳 씩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한다. 임기 2년의 광양교육장에는 4명이, 화순교육장에는 11명이 지원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된 상위 순위 2명 가운데 1명을 교육장에 임명한다. 광주와 달리 전남지역 교육장에 지원자가 쏠린 것에 대해서는 “광주와 비교해 전남도교육청 관할 범위가 넓은 탓에 지역 교육장에게 부여된 재량이 크다. 또한 언론과 교육단체의 감시·견제도 광주와 비교해 느슨한 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화순전남대병원 정부 인증 받아

화순전남대병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최근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다국어상담, 통역서비스, 편의제공,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 서비스 관련 주요사항들이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향후 2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통합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녘 17:32

달돋이 03:54
달질 14:49

추위로 여는 새해
대체로 맑고 서해안에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조금	-2/4	보성	구름조금	-4/4
목포	구름조금	-1/3	순천	구름조금	-2/5
여수	구름조금	-1/5	영광	구름조금	-4/2
나주	구름조금	-4/4	진도	구름조금	-1/3
완도	구름조금	0/5	전주	구름조금	-4/3
구례	구름조금	-5/4	군산	구름조금	-4/2
강진	구름조금	-3/4	남원	구름조금	-6/3
해남	구름조금	-3/4	흑산도	구름조금	3/5
장성	구름조금	-4/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0.5~1.5
남해	면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20	11:43
	17:09	23:45
	00:07	06:59
여수	12:56	18:49

◇주간 날씨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4/7	-3/7	-2/6	-3/5	-4/5	-3/5	-3/5

◇생활지수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광주·전남 영하 6도 추위 지속...서남해 풍랑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이번주 광주·전남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3일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하 6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전 동안 추위가 맹위를 떨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2일 서해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문의. 010-6834-7400